강한 경제 전주 위한 국가예산 확보 사활

우범기 시장, 이틀간 국회 찾아 집중 공략 나서… 오늘 예결위원 · 상임위원장 등 만나 지원 건의 예정

지난달 31일 국회를 방문한 우범기 시장은 국회 단계 예산 반영을 위해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 연고 의원들에게 전주 발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우범기 시장이 양경숙 의원에게 현안을 건의하고 있는 모습이다.

내년도 국가예산 배정을 위한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된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의 대변혁을 이끌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우범기 시장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주요 사업 담당 국장들과 함께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예산 정국으로 접어든 국회를 찾아 지역연고 국회의원과 예결위원, 상임위원장 등을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활동을 펼친다.

앞서 우 시장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9월 이후 예산결산과 임시국회, 국정감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했던 국회 대신 기재부 예산실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집중 공략에 나서왔다.

우 시장은 먼저 첫날인 31일에는 국회 단계 예산 반영을 위해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연고 의원들에게 전주 발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 등을 고려해 8개 주요 신규사업의 정책 질의서를 각각 전달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 상임위·예결위 단계 정책질의 등 국회 단계 반영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우 시장이 이날 건의한 8개 주요사업은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전북 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 △드론 핵심기술개발 全주기 인프라 구축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댐 구축 △메카노 바이오헬스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국제한지산업대전 개최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건립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등이다.

우 시장은 이어 11월 1일에도 국회예산심의의 키를 쥔 예결위원장과 주요 사업 소관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국회 본예산이 통과하는 오는 12월 2일까지 전북도와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회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에 나서는 등 내년도 국가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강한 경제 전주의 미래를 바꿀 성장동력을 만들어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국회예산안 확정시까지 수시로 방문해 건의할 예정"이라며 "남은 기간 국회 상주반을 중심으로 전북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체계적 지하수 관리 · 빗물 이용 활성화 위한 점검 펼친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점검반 구성 본격 활동… 빗물이용시설 사용자는 이용량 해당되는 수도요금 최대 30% 감면 혜택

전주시가 체계적인 물 자원 이용을 위해 지하수 관리와 빗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점검 활동에 나선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박용자)는 최근 친환경 수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와 빗물의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먼저 시는 현재 지하수 관리를 위해 설치 운영 중인 26개 보조관측망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보조관측망은 지하수 수위 변동뿐만 아니라 지반침하와 수질오염 등 지하수 전반에 걸쳐 장애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어 자원고갈 방지를 통한 지하수를 항구적으로 관리 및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설비이다.

시는 지하수 관리 시설과 함께 연동돼 작동하는 운영시스템(SW)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해 지하수 관측장비의 중요 정보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하수 관리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빗물 이용 시설 329개소에 대해서도 시설의 고장 유무와 여과장치·유량계 파손 점검, 통합관리시스템의 작동·유지 상황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특히 시는 최근 빗물 사용량이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함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시설 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점 조사한 후 관리사용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시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이용하면 수도 요금 중 빗물 이용량에 해당되는 수도 요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빗물 이용 시설을 활성화해 물 재이용을 통한 상수도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용자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지하수와 빗물은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필수적 재원"이라며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지하수와 빗물 이용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복지재단, 청소년 통학비 지원

통학생 354명에 4분기 해당 통학비 1인 7만2000원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저소득가정 자녀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 354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저소득가정 청소년 통학비 지원은 복지재단의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업으로, 고물가 시대에 저소득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자녀 교통비 부담을 덜고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통비는 원거리 고등학교에 배정돼 통학 거리가 2km 이상인 저소득가정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며, 전주시복지재단은 한부모가족 등 취약 가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사설 셔틀버스로 통학하는 고등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지원되는 통학비는 1인 7만 2000원으로,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 기준 월 2만 4000원씩 3개월간 편도 통학 비용에 해당한다.

전주시복지재단은 내년에도 '저소득가정 청소년 통학비 지원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학업에 매진하는 청소년들의 매일 등굣길을 응원하며 이번 통학비 지원이 '작지만 큰 배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은 어려움이 있는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모금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눔에 관심 있는 많은 전주시민과 기업, 단체들의 기부 참여(문의 063-281-0030)를 기다리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11개소 배수지 청소 · 시설물 점검 병행 추진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 내부 저수조를 깨끗하게 청소한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박용자)는 총사업비 9600만 원을 투입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11월 23일까지 45일간 서신배수지 등 11개 배수지(생활용수 10개소, 공업용수 1개소)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시설관리권자는 매년 반기별로 1회 이상 수도시설에 대한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시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들과 팔복1·2공단 등 수용가에 깨끗한 용수 공급을 위해 매년 상반기(4~5월)와 하반기(10~11월) 총 2회에 걸쳐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또 배수지 청소와 더불어 평상시 저수조 내 담수로 인해 점검이 어려운 내부 시설 부분에 대한 세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시설을 면밀히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청소로 인해 각 가정에서 단수를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 급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배수지의 각 저수조별로 청소와 급수를 교대로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용자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기적인 배수지 청소 등 청결한 상수도시설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금암도서관, 김정숙 작가 '행복이 가득한 집' 전시

전주시립 금암도서관(도서관본부장 김병수)은 오는 12월 3일까지 김정숙 작가(군산대 미술학과 교수)의 '행복이 가득한 집'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금암도서관이 연중 운영 중인 '도서관 內 미술관' 사업의 아홉 번째 전시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은 지난 3월부터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에게 미술품 전시, 전시와 연계된 미술 강의, 그리고 미술 북큐레이션을 월별로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정숙 작가의 회화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월 2일에는 김정숙 작가의 '미술과 행복 이야기' 강좌도 마련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숙 작가는 "갈등과 강박으로 이어지는 불안감보다는 행복과 축복으로 가득한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자연의 모습과 조화로운 현대적 감성이 담긴 달항아리를 통해 따뜻한 위로와 안정감으로 평온의 이야기를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